

John Steinbeck의 宗教觀과 社會意識

金 利 哲*

이 小論의 目的은 Steinbeck의 代表作 The Grapes of Wrath(1939)와 East of Eden(1952)을 相互 比較하면서 그의 宗教觀과 그 宗教觀에서 우리나온 人間觀을 찾아내고, 그 人生觀을 바탕으로한 그의 社會觀과 그 限界性を 證明하려는 데 있다. 또 그의 社會觀의 限界性を 糾明한다 함은 共產主義者들이나 一部 左翼文人들이 Steinbeck의 作品을 人類의 良心의 소리니 어찌니 하여 그를 마치 共產主義 豫言者처럼 떠받든 허황된 偶像을 打破하자는 뜻도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는 論文題目대로 그의 宗教觀에서부터 다루어야 하는 것이 順序이나 作品의 出版年代를 보면 오히려 The Grapes of Wrath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다루어 그의 社會觀을 우선 찾아내고, 그 社會觀 밑에 깔린 限界性的의 原因이 무엇인가를 그의 宗教觀에 비추어 摘出케 될 것이다.

그의 作品 The Grapes of Wrath가 1939年 4월에 出刊되자 그것은 곧 論爭의 소용도리에 말려들었다. 이 論爭은 그 作品의 文學的 價値를 따지는 데 爭點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政治나 社會倫理面에서 싸움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즉 左翼系列에 속하는 人士들은 이 作品이 人類良心의 소리를 代辯하고 또한 美國社會의 終末을 豫告한 것이라고 떠들었고 한편에서는 그런 論理는 成立될 수 없다고 反駁하는 바람에 이 論爭은 더욱 加熱되었던 것이다.¹⁾ 이와 같이 하나의 文學作品이 政治性, 社會倫理性을 띤 論爭의 씨앗이 된 것은 30年代라는 美國의 經濟史的 背景이 있었기 때문이다.

New York 株式市場의 大暴落으로 1929年 시작된 美國의 大恐慌은 하루에 40개소의 銀行이 門을 닫는 結果를 빚었고 國民所得은 前年度의 半으로 줄어 들어 失業者의 무리는 길거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 後 Roosevelt 大統領이 就任하면서 여러가지 農業政策과 失業者 救濟策을 썼지만 이 惠澤을 받은 것은 大部分 資本家, 大地主들로서 The Grapes of Wrath에 登場하

* 文理科大學(서울) 英文學科 副教授

1) George T. Milton, *The Truth about John Steinbeck and the Migrants*, (Los Angeles, 1939), p.5
Martin Staples Shockly, "The Reception of *The Grapes of Wrath* in Oklakoма," *American Literature*, 15 (Jan. 1945), pp. 351~361.

는 小作人이나 낱품팔이 勞働者들에게는 아무런 惠澤이 없었고, 그들은 그런 法律이나 救濟策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生産抑制에서 오는 逆效果로 보다 더한 失職과 低賃金を 甘受하지 않으면 안되는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特히 이 結果로 疲弊된 南部의 農民들은 地主를 爲主로 한 農業政策의 犠牲이 되었고, 또한 北部 機械産業의 支配를 받게되어 農地를 잃거나 버리고 보따리를 싸지고 故郷을 등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1930年代의 이 가난한 農民들의 流浪은 富를 찾는 投機的 移動이 아니고 經濟的 壓迫에 의한 強制追放의 結果였던 것이다.

이런 追放된 貧農들이 彷徨하는 悲慘狀과 거기서 빚어지는 人間的 悲劇에 焦點을 맞춘 것이 *The Grapes of Wrath* 였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作品은 文學的 側面보다 오히려 Steinbeck 이 여기서 指摘한 狀況이 事實이나 아니냐, 또 事實이라면 聯邦政府和 州政府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政治的 혹은 人道的 側面에서 떠들기 시작했던 것이다.²⁾

여기서 問題가 된 이 小說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 보자면, *The Grapes of Wrath* 는 30章으로 된 作品이다. 이 30章 중에서 前半의 18章까지는 Oklahoma 의 旱害를 描寫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機械文明의 侵入에 따라온 銀行이나 土地會社의 橫暴를 地主와 小作人의 對話形式으로 說明해 나오다가 드디어 Oklahoma 州에서 쫓겨난 小作人들이 66號 國道를 따라 단 한장의 求人廣告를 받고 「꿀과 짓이 흐르는」 California 로 移動하는 樣相을 그리고 있으며, 後半의 19章부터는 集團意識이 없었던 이 避難民들이 豊饒한 땅 California 를 찾아갔으나 그 곳 住民들로부터 사람 取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浮浪者, 侵入者, 事故分子로 심지어는 때려 죽일 빨갱이>³⁾로 불리며 一定한 職業도 없이 悲慘한 生活 속에서 점차로 社會意識에 눈을 떠가는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이처럼 勞働者들의 意識過程을 더듬으면서, 거기에서 派生되는 事實 즉 人間的 品位가 철저히 無視當하고 심지어는 人間的 存在價値조차 認定받지 못하는 人間的 분노를 한데 묶어 美國社會에 爆彈처럼 내던지고 있다.

이러한 外部의 不當한 虐待나 壓力을 除去하기 위해서는 弱者인 勞働者나 農民이 集團化하여 鬪爭해야 된다는 社會意識은 30年代에 Steinbeck 에게 凝固된 思想의 原點이었다. 그가 이런 社會意識에 到達하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作品 속에서 그의 社會意識의 줄거리를 더듬자면, 우선 우리는 그가 1934년에 쓴 短策篇 *The Raid* 에 부딪치게 된다. 그는 이 作品에서부터 從來에 볼 수 없었던 共產主義者를 主人公으로 登場시키고 있다. 비록 作品 自體는 未熟한 것이라 할지라도 共產黨員에 의한 地下工作이라든가 細胞組織 등을 다루어, 이 때부터 社會問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바로 이 時期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美國民들이 가장 社會問題에 關心을 가질 때이기도 했다.

2)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New York: Twayne Publishing, Inc., 1961) p. 95.

3) *The Grapes of Wrath*, (Australia: Penguin Books Ltd., 1959) pp. 351~361.

그러나 The Raid 에 있어서의 作家의 姿勢는 分明치 못하다. 라기 보다는 勞使問題, 나아가서는 共產主義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作家의 思想이 이지 못한 때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作品에서의 主人公들이 右翼團體의 襲擊을 받고, 또 警察에 잡혀 고문을 당하여도 變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作家自身の 態度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讀者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要素도 이 作品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文學에 從事하는 사람이라면 無心할 수 없었던 當時의 社會情勢의 反映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作品에까지는 아직도 作者의 뚜렷한 思想이 投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35年 作인 White Quail 을 거쳐 The Breakfast(發表年度 未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Steinbeck 의 참모습에 부딪치게 된다. 이것은 아주 짧은 感想文 비슷한 것이지만, 勞動問題에 대한 作者의 基本姿勢가 이 몇 페이지밖에 안되는 作品에 鮮明히 나타나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의 勞動問題란 바로 自己가 잘 알고 있는 農民問題라는 것, 따라서 勞動問題에 대한 그의 關心이 극히 日常的 衣食任의 欲求로부터 出發하였다는 點 등이다. 어떤 經濟理論이나 政治의 背景을 갖고 있지않은 貧農出身인 Steinbeck 이 그의 社會意識을 이처럼 身邊에 가까운 問題에 着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극히 自然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고, 또 이 가깝고도 익숙된 領域을 깊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後日 그의 大作 The Grapes of Wrath 를 낳게 된다. 따라서 <아침밥>을 얻어 먹는 <나>라는 人物이, 맑은 아침 공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상쾌한 맛을 吟味하고 있는 것과 같이, Steinbeck 의 社會意識은 健康한 農民을 對象으로 했을 때 비로소 清新한 香氣를 풍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The Grapes of Wrath 의 序曲이라고도 볼 수 있는 In Dubious Battle(1936) 을 한번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作品 속에서의 作家의 姿勢는 The Grapes of Wrath 에서와는 全적으로 다르다. 그는 이 싸움을 題名이 말하듯이 <勝負를 가늠할 수 없는 싸움>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은 傍觀者의 立場에서 붓을 놀리고 있을 뿐이다.⁴⁾ 그러므로 이 作品에는 問題의 提起만이 있을 뿐 讀者의 마음을 휘어잡는 內容이 없다. 다시 말해 이 作品을 The Grapes of Wrath 와 比較할 때 우리가 깨닫는 가장 커다란 差異는 이 傍觀者의 立場이다. 즉 作家가 여기서는 問題解決에 臨하지 않고 팔장을 끼고 있는 點이다. 더구나 하나의 主義를 信奉하는 人物을 첫머리부터 登場시켜 所謂 <퇴지같은 資本主義者>들과 싸움을 시켜 나가면서도 한 쪽에서는 罷業에 대한 不信과 虛無感을 갖드렸다는 點, 또한 非情의 世界를 取扱하면서도 主人公들의 對話를 통해 人情과 사랑에 重點을 두어 感傷化시켰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⁵⁾ 또 <革命>이라는 過激한 말이 튀어 나오고, 殺人이 계속되고 主人公의 한 사람이 銃에

4)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p. 146.

5) Ibid., II, 124—125.

맞아 죽는 場面이 있으면서도 結局 그것은 어떤 主義에 대한 體面차림일 뿐, 그런 極端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즉 回避할 수 없었던 人間 感性의 成長이나 그 發露는 볼 수 없다. 이것은 分明히 눈 앞에 있는 社會問題에 대한 作家自身の 信念 不在에 原因이 있는 것이지만 同時에 Steinbeck 이 어느 主義에 의한 統一化라든가 또한 어떤 主義에 의한 集團行動에 매우 懷疑的 내지는 否定的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⁶⁾

그러나 이 Dubious Battle 을 起點으로 하여 그는 一大轉換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原因은 우선 이 時期의 社會風潮에서 影響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것 보다는 後述할 그의 思想, 즉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혔던, 生命을 肯定하고, 生命을 發揚시키는 것이 生命을 지닌 者의 義務라고 하는 思想⁷⁾에 더 깊은 理由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主義 如何를 막론하고 土地를 빼앗기고 追放當하여 일거리도 없이 流良하며 굶어 시들어가는 農民들을 그는 坐視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럴 수 있었다면 그것은 自己 마음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生命의 讚歌를 根本적으로 否定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自己破滅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이 The Grapes of Wrath 에서 傍觀者의 立場을 버리고 얼마나 眞摯하게 農民問題를 다루려 했는가는 몇가지 逸話로 미루어 보아도 간단히 알 수 있다.

Steinbeck 은 이 作品을 完成한 後 너무 지친 나머지 몇주 동안이나 入院해 있었고, 醫師로부터 絶對安靜을 命令 받았다고 한다.⁸⁾ 또 그는 이 作品을 쓰기 위하여 1936年 9月부터 직접 材料蒐集에 나서, Salinas 나 Bakersfield 等地의 流浪民 天幕을 찾아 起居를 같이 하며 問題의 深刻性을 몸소 體驗했었다.⁹⁾ 그는 친구 Lawrence Clark Powell 에게 편지로 이 때의 狀況을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I have to write this sitting in a ditch. I’m out working—may go south to pick a little cotten. Migrants are going south now and I’ll probably go along”¹⁰⁾

또 그는 Of Mice and Men(1936)의 映畫化 契約에서 생기는 6,000弗을 流浪民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 때의 慘狀을 出版業者 Pascal Covici 에게 편지를 보내,

I must go over into the interior valleys. There are five thousands families starving to deatn over there, not just hungry, but actually starving In one tent there are twenty people

6) French, op. cit., p. 99.

7) East of Eden (New York: The Viking Press) pp. 413—415.

8) Lisca, op. cit., p. 147.

9) Ibid., II, 144.

10) Lawrence Clark Powell: “Toward a Biography of John Steinbeck,” Celophon 3 (Autumn, 1938), pp. 562—563.

quaranted for smallpox and two of the women are to have babies in that tent this week
Talk about Spanish children. The death of children by starvation in our valley is simply
staggering I'll do what I can Funny how mean and how little books become in
the face of such tragedies.”¹¹⁾

라고 慨嘆 했다. 그 後 Life 誌가 寫眞師를 보내며 이들에 關한 投稿에 많은 돈을 提供하겠다고 하자, 그는 實費 以上을 拒絶하고,

“I'm sorry but I simply can't make money on these people The suffering is too great for me to cash in on it.”¹²⁾

이라고 回答하므로써 그가 傍觀者의 態度에서 벗어나 어떤 主義나 一般論的 立場에서가 아니라 The Breakfast 에서 提起했던 問題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또 넓히는 데 모든 精熱을 불살랐던 것이다.

따라서 이 作品에 나타난 것은 產業構造의 矛盾에 대한 싸움이며, 가진 者들의 我慾과 偏見에 대한 宣戰布告이며, 나아가서는 政治家들과 聯邦政府의 無策, 無誠意에 대한 正面 攻擊인 것이다. 따라서 Steinbeck 은 이 作品에서 過去의 傍觀者의 態度를 버리고 分明히 小作農의 立場에 서서 이들의 苦痛을 世上에 알리고, 當時의 美國 資本主義의 殘酷성과 社會政策의 貧困, 또는 無能에 抗議하고 있다.

그렇다면 Steinbeck 은 이 問題의 解決策으로 무엇을 내어 놓았을까? 結論부터 말한다면 얼핏 보기에 讀者가 啞然할 수밖에 없는 解決策을 내놓았다고 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作品 속에서 人間이 處할 수 있는 極限狀況까지 몰고간 末尾를 左翼들이 좋아하는 勞動者 農民의 暴動이나 殺戮으로 끝맺지 않고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For a minute Rose of Sharon sat still in the whispering barn. Then she hoisted her tired body up and drew the comforter about her. She moved slowly to the corner and stood looking down at the wasted face, into the wide, frightened eyes. Then slowly she lay down beside him. He shook his head slowly from side to side. Rose of Sharon loosened one side of the blanket and bared her breast. ‘You got to,’ she said. She squirmed closer and pulled his head close. ‘There.’ she said. ‘There.’ Her hand moved behind his head and supported it. Her fingers moved gently in his hair. She looked up and across the barn, and her lips came together and smiled mysteriously.”¹³⁾

11) Lewis Gannet, “Introduction,” The Portable Steinbeck, (New York: The Viking Press. 1946), pp. XX—XXI

12) Lisca, op. cit., p. 146.

13) The Grapes of Wrath, p. 416.

이것이 이 作品 全篇에서 農民의 反亂이나 革命을 豫期할 程度로 過激한 붓을 휘두른 作家의 解決策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評者에 따라서는 이 마지막 場面の 解釋이 區區 하지만 한 마디로 자른다면 그는 이런 極限狀況의 解決도 이런 狀況을 만든 者들에게 끝까지 抗議하고 反省을 促求해야 하지만 結局 사랑, 良心, 그리고 犧牲에 의하여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¹⁴⁾ 거듭 말하면 이 作家가 忿怒를 담아 그려온 이 無慘한 悲劇의 解決을 人間의 사랑, 良心上의 問題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讀者가 啞然해질 程度의 解決策을 왜 그는 내어 놓았을까? 이 回答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人間觀 내지는 人生觀을 檢討할 必要를 느끼며, 따라서 그의 人間觀의 母體가 되는 그의 宗教觀을 파헤쳐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宗教觀은 半自敍傳的인 그의 作品 East of Eden(1952)에 赤裸裸하게 吐露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涉獵해야 하고 또 The Grapes of Wrath 와 East of Eden 을 比較하고자 하는 所以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Steinbeck 은 East of Eden 에서 自己의 宗教觀을 說明하기 위하여 人間의 善惡問題, 즉 人間의 原罪問題를 다루려는 目的으로 創世紀 第4章을 材料로 삼고 있다. 그는 4章 중에서도 第7節의 한 句節 “너는 罪를 다스릴지니라.”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또 이 句節 중에서도 “다스린다”라는 動詞句를 中心問題로 삼고 있다. 즉 第4章의 16個節을 完全無缺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Timshel’¹⁵⁾이란 動詞 한마디만을 잘못 만들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 原語를 後世 사람들이 잘못 翻譯하였다고 그는 主張한다.

“The American Standard translation orders men to triumph over sin, and you can call sin ignorance. The King James translation makes a promise in ‘Thou shalt,’ meaning that men will surely triumph over sin. But the Hebrew word, the word timshel—‘thou mayest’—that gives a choice. It might be the most important word in the world. That says the way is open. That throws it right back on a man. For if ‘Thou mayest’ it is also true that ‘Thou mayest not.’ ”¹⁶⁾

즉 美國 標準版 聖書에서 ‘do’라는 助動詞를 넣어 人間에게 罪를 다스릴 것을 命令하고 있고, 英國 欽定版은 ‘shalt’란 助動詞를 붙여 人間이 언젠가는 罪를 다스리게 될 것을 約束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命令을 지키지 못하면 人類에게는 滅亡이 올 것이오, 한편 하나님이 約束을 했다면 人類는 아무 努力이 없이도 結局에 가서는 罪를 克服할 수가 있

14) Lisca, op. cit., p. 177.

15) Goseph Fontenrose 教授는 그의 著書 John Steinbeck 에서 Timshel 이 아니고 Timshol 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Text 대로 Timshel 을 사용한다.

16) East of Eden: p. 304.

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 가지 翻譯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므로 'mayest'라는 助動詞로 옳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죄를 다스릴 수도 있나니라>고 한다면 <죄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말로도 演譯될 수 있어 人間이 選擇權을 갖게 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罪를 克服할 能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즉 自己 努力如何에 따라서 罪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如意치 않으면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 人間의 選擇權이 매우 重要한 問題라고 그는 말한다.

Steinbeck은 또한 人間이 罪를 짓게 된 原因에 대해서도 여러 登場人物을 시켜 既成的, 傳統的, 聖書解釋에 꼬리표를 하나 더 덧붙이려고 한다. 그것은 카인과 아벨이 神에게 같이 祭物을 바쳤는데, 왜 神은 아벨 것만을 받았느냐, 따지고 보면 不公平한 處事라는 것이다. 그래서 登場人物 Adam은 말한다.

"I remember being a little outraged at God. Both Cain and Abel gave what they had, and God accepted Abel and rejected Cain. I never thought that was a just thing. I never understand it."¹⁷⁾

이렇게 옳지 못하고 不公平할 수가 있겠느냐고 Adam은 생각한다. 그러니 카인만 헨 보따리를 골라 쥔 셈이다.

"I can't get over a feeling that Cain got the dirty end of the stick."

結局 神이 不公平함으로썸 헨 보따리를 골라 쥔 카인인데, 그런 不利한 것 즉 咀呪를 왜 카인한테 돌렸느냐고 Adam은 계속 묻고 싶어한다. 그러나 Samuel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God did not condemn Cain at all. Even God can have a preference, can't he?"¹⁸⁾

왜 人間만이 選擇權을 가지느냐, 神에게도 選擇權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Steinbeck은 이 選擇權을 特別 重要視하고 또 強調했다. 그는 계속하여 카인 以後 現在의 우리에게 이르는 原罪問題에도 登場人物을 시켜 論爭을 끌고 나가고 있다. 우선 Samuel의 생각부터 들어 보면,

"Two stories have haunted us and followed us from the beginning." samuel said. "We carry them along with us like invisible tails—the story of original sin and the story of Cain and Abel."

17) Ibid., II, 169.

18) Ibid., II, 269.

19) Ibid., II, 269.

라고 原罪를 認定하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But do you think of another frame to this picture? Excuse or not, we are snapped back to our ancestry. We have guilt.”²⁰⁾

라는 說明으로 우리는 카인의 後孫이기 때문에 罪를 지니고 있다고 했고, Adam의 <카인만이 손해를 보았다>는 말에 대하여도,

“Maybe he did,” said Samuel. “But Cain lived and had children, and Abel lives only in the story. We are Cain’s children.”²¹⁾

라고 대답하여 마치 우리가 카인의 後孫됨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투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Adam은,

“We are descended from this [story]. This is our father. Some of our guilt is absorbed in our ancestry. What chance did we have? We are the children of our father. It means we aren’t the first. It’s an excuse, there aren’t enough excuse in the world.”²²⁾

라고 따지고 들지만 Lee의 생각은 다르다.

“Not convincing ones anyway,” said Lee.

Else would long ago have wiped out guilt, and the world not be filled with sad, punished people.”²³⁾

즉 그렇다면 이 世上에는 現在 罪가 없어야 하고 또한 슬픈 事實이나 罰을 받은 사람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고 反駁하므로 足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위와 같은 Samuel이나 Adam의 態度 즉 카인의 後孫이니까 無條件 罪가 있다는 생각이나 또는 先祖가 저지른 罪니까 우리가 責任을 질 수 없다는 생각들에 별로 興味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Lee 즉 Steinbeck의 宗教的 姿勢이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人間은 罪를 짓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Lee에게 있어서 <罪가 있다>, 또는 <責任질 수 없다>라는 등의 論爭은 問題가 될 수 없고, 요는 우리가 진 罪 또는 지을 罪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救援

20) Ibid., II, 269—270.

21) Ibid., II, 270.

22) Ibid., II, 268—269.

23) Ibid., II, 268—269.

을 받을 수 있는가가 問題라는 것이다. 그는 이 救援을 역시 人間의 自由選擇에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I think this [Cain and Abel story] is the best known story in the world because it is everybody’s story. I think it is the symbol of the human soul The greatest terror a child can have is that he is not loved, and rejection is the hell he fears. I think everyone in the world to a large or small extent has felt rejection. And with rejection comes anger, and with anger some kind of crime in revenge for rejection, and with crime guilt—and there is the story of mankind. I think that if rejection could be amputated, the human would not be what it is. Maybe there would be fewer crazy people. I am sure in my-self there would not be many jails The human is the only guilty animal. Now wait! Therefore I think this old and terrible story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chart of human soul—the secret, rejected, guilty soul.”²⁴⁾

Steinbeck 은 이 作品에서 Lee 뿐만 아니라 3代에 걸치는 Trask 家의 逸話를 통하여 위의 事實을 여러 번 說明하려 했으며, 그는 또한 위와 같은 罪의 原因뿐만 아니라 이 罪를 어떻게 다스려, 人間의 救援을 받을 것인가를 앞서 말한대로 “Do thou”라거나 “Thou shalt”가 아닌 “Thou mayest,” 즉 人間의 自由意志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누누히 證明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이 人間의 自由意志의 根據를 人間精神의 不滅에 두고 있다. 따라서,

“And I feel that I am a man. And I feel that a man is very important than a star. This is not theology. I have no bent toward gods. But I have a new love for that glittering instrument, the human soul. It is a lovely and unique thing in the universe. It is always attacked and never destroyed.—because ‘Thou mayest.’ ”²⁵⁾

라고 Lee 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고, 이런 Lee 였기 때문에 Aron 을 軍隊에 가게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 넣는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 Adam 의 憤怒를 두려워하는 Caleb 을 Adam 의 病床으로 이끌고 가 Caleb 에게도 選擇權을 주라고 Lee 는 強請하는 것이다.

He did a thing in anger, Adam, because he thought you had rejected him. The result of his anger is that his brother and your son is dead “Your son is marked with guilt out of himself—out of himself—almost more than he can bear. Don’t crush him with rejection. Don’t crush him, Adam

24) Ibid., II, 271.

25) Ibid., II, 304.

“Adam, give him your blessing. Don’t leave him alone with his guilt

“Help him, Adam, help him. Give him his chance. Let him be free. That’s all a man has over the beasts. Free him! Bless him!”²⁶⁾

뒤에서 더 言及하겠지만 이 選擇權, 이것이 그의 社會意識의 限界性의 基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神이 要求하는 罪 벗음과는 確實히 距離가 먼 解決策이다. 이것은 結局 罪에서 벗어나는 主體를 어디까지나 人間에게 두자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神으로부터의 人間の 離脫, 神에서부터의 人間の 獨立을 意味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神에게 向해서 悔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人間이 自己自身에게 悔改하는 것이다. 萬一 神이 要求하는 대로의 <約束>이나 <命令>이라면 카인은 喪失되고 또 카인의 皮를 받은 우리 人間들은 救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Steinbeck 은 神과의 關係에 있어서가 아니라 人間이 自己에 대한 關係에서 神의 救援에 값하는 救援을 發見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神의 말을 믿느냐, 人間の 말을 믿느냐의 두 가지 可能性을 놓고 Steinbeck 은 彼岸에 執着한 敎理書로서의 聖書解釋을 止揚하고 人間中心의 生活敎理로서의 聖書解釋을 主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宗教觀을 지닌 Steinbeck 은 우리 人間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는 人生이란 善과 惡의 거미줄에 걸려 있는 存在라고 規定짓는다. 즉, 우리의 生活, 우리의 思想, 우리의 欲望, 우리의 貪慾과 殘忍性, 우리의 親切과 寬容 등 할 것 없이 모두가 善과 惡의 그물에 얽혀있는 存在, 이것이 人間이라고 그는 뜻을 박는다.

“Humans are caught—in their lives, in their thoughts, in their hungers and ambitions, in their avarice and cruelty, and in their kindness and generosity too—in a net of good and evil”

“A man, after he has brushed off the dust and chips of life, will have left only the hard, clean questions: Was it good or was it evil? Have I done well—or evil?”²⁷⁾

結局, 人間이 죽음에 直面하였을 때 남는 단 한 가지 明白한 疑問은 自己의 一生이 善한 것이었나 혹은 惡한 것이었나를 묻는 단 한 가지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人間이 이런 存在이기 때문에 이 善과 惡의 相靚 속에서 Steinbeck 은 人間の 歷史를 읽으려는 것이다. 그가 <아벨>

26) Ibid., II, 602.

27) Ibid., II, 413.

이나 <뉘>과 같은 神이 選擇한 사람들을 外面하고 카인의 後裔로서의 人間을 把握하려 한 것은 우리들 個人마다에서 카인과 같은 罪의 要素를 發見하는 데 그 原因이 있다. 그러므로 카인이 카인 나름대로 神의 保護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善과 惡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는 우리에게도 救援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救援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Steinbeck은 傳統的 信仰態度나 聖書解釋과는 역시 見解를 달리한다. 그는 앞서 말했듯이 神의 慈悲나 選擇에 의해서가 아니라 人間의 自由意志와 이 自由意志를 行使한 選擇權으로 해서 救援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主張한다. 그래서 Steinbeck은 人間 속에서 그것도 個人 속에서 小宇宙를 즉 神性を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 그는 人間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否定할 수 없는 神性的 臨在를 認定하고 人間이 비록 神이 要求하는 대로 길을 걷지 못하고 있지만, 人間은 神의 要素를 품고 있기 때문에 人間을 各各 倫理的 한 單位로 看做하고 救援의 可能性을 찾으려 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위의 'Thou mayest'란 解釋은 다만 人間의 倨慢에서 나왔을 뿐 人間에 의한 人間의 救援을 神의 그것과 同列에 놓는다는 것은 論理에 어긋나는 主張이랄 수밖에 없다.

Steinbeck은 이런 思想과 論理를 갖고 있기 때문에,

Maybe you'll come to know that every man in every generation is refined. Doesn't a craftman, even in his old age, love his hunger to make a perfect cup—thin, strong, translucent? . . . All impurities burned out and ready for a glorious flux, and for that—more fire. And then either the slag heap or, perhaps what no one in the world ever quite gives up, perfection.”²⁸⁾

즉 各 世代에 있어서 各 사람이 純化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것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不純한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타버리고 榮光의 빛나는 흐름으로 차차 다가가고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하여 人間에게는 더욱 더한 試練이 加해진다고 Steinbeck은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 試練을, 人間은 자기가 갖고 있는 選擇權에 따라서 倫理的 한 單位를 擔當한 사람으로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되고, 또 人間의 價値가 거기에 있다고 그는 主張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空氣가 占할 空間을 쓸모 없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You see there's a responsibility in being a person. It's more than just taking up space where air would be”²⁹⁾

28) Ibid., II, 600.

29) Ibid., II, 455.

이렇게 倫理의 한 單位로써 自己의 責任을 自覺할 수 있는것은 오직 人間에게만 許容된 것이며 이것이 또한 人間을 人間답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And it occurs to me that evil must constantly respawn, while good, while virtue, is immortal. Vice has always a new fresh young face, while virtue is venerable as nothing else in the world is.”³⁰⁾

라고 말함으로써 惡이 자꾸만 새끼를 쳐서 아무리 世上에서 繁榮을 누리고 또 惡德이 말쑥한 얼굴로 粉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一時的인 것이고, 이와는 反面에 人間 속에 깃든 善과 德性은 永遠不滅의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니까 Steinbeck 은 人間の 自由意志에 價値를 주고 또한 人間에게 神性을 賦與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人間 속에 간직된 善이요, 美이며, 德性이고 또한 誠實性이며 特히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몇 가지 要素가 人間을 神과 가까이 놓이게 해 주고 또 永遠한 生命을 주는 것이라고 說破한다. 그러나 人間の 選擇權 行使는 人間을 神으로부터 멀리는 것도 아니며, 또 神이 指示하는 길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神이 내리는 命令 以上으로 自由意志에 向하는 方向을 規定해 준다고 역시 그는 믿고 있다.

이와 같이 人間이 자기가 지닌 神性, 즉 自由意志와 善과 美와 사랑을 發顯할 때 人間은 榮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And I guess a man’s importance in the world can be measured by the quality and number of his glories. It is lonely thing but it relates us to the world. It is the mother of all creativeness, and it sets each man separate from all other men.”³¹⁾

이라고 말함으로써 人間の 重要性을 榮光의 質과 數로 測定하려 하기도 했다. 이런 榮光을 찾는 삶의 길이 괴롭고 또한 외로운 길이라고 認定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이 世上과 關係를 갖게 해주며, 그러면서도 各者를 다르게 해주는 모든 創造의 母體가 되는 것이라고 그의 確信을 나타낸다.

그래서 Steinbeck 은, 人間은 이러한 榮光으로 向하는 努力과 生活에서 救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人間이 混濁과 彷徨으로부터 눈을 뜨고 善한 것의 榮光에로 자기를 引導해 가는 데 救援이 있고, 또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倫理의 한 單位로서의 個人이 걸머진 先天的 義務이기도 하다고 主張한다. 또한 우리가 榮光의 길을 가고 있느냐

30) Ibid., II, 415.

31) Ibid., II, 131.

아니냐는 個人마다 끊임 없이 自己自身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인 同時에 그것 없이는 우리들의 生命의 價値를 無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Steinbeck 이 계속 讚揚하는 個人의 價値라는 것은 위와 같은 道德性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겉으로는 神과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窮極의으로는 人間을 神 앞에 세우고 神과 人間과의 對話 속에서 人間의 姿勢를 스스로 묻게 하자는 것이다.

“And this I believe: that the free, exploring mind of the individual huma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³²⁾

Steinbeck 은 이처럼 個人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메이는 마음이 世上에서 가장 重要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이 彷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救援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 滅亡을 當하는 수가 없지 않지만,

“Surely most men are destroyed, but there are others who like pillars of fire guide frightened men through the darkness.”³³⁾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겁에 질려 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引導해 낼 불기둥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個人이 滅亡에의 길을 가느냐, 혹은 불기둥이 되느냐는 神이 命令하거나 指示하는 것이 아니라 各 個人이 자기 속에 품고 있는 倫理의 한 單位로서의 價値를 어느 程度까지 貴重하게 생각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는 믿었고, 따라서 Steinbeck 은 最後에 가서는 個人의 靈魂이 그리고 人間 속에 깃든 善이 勝利할 것이라고 確信했다.

그런데 이 個人의 靈魂, 個人의 善을, 다시 말해 善과 惡을 앞에 놓고 한 쪽을 取할 수 있는 個人의 自由意志와 選擇權을 짓밟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것은 大衆文化요, 集團이라고, Steinbeck 은 서슴치 않고 대답한다.

우리는 大衆文化에 汚染되어 創造性을 喪失하게 되었으며, 한편 이 時代는 人間을 過度하게 集團으로 統合시킴으로 人間을 滅亡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榮光에로의 외로운 길, 個人이 홀로 걷는 길만이 創造의 母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所謂 mass 와 group 이 다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Steinbeck 은,

It is true that two men can lift a bigger stone than one man. A group can build automobiles

32) Ibid., II, 132.

33) Ibid., II, 308-309.

quicker and better than one man. And bread from a huge factory is cheaper and more uniform. When our food and clothing and housing all are born in the complication of mass production, mass method is bound to get into our thinking and eliminate all other thinking. In our time mass or collective production has entered our economics, our politics, and even our religion, so that some nations have substituted the idea collection for the idea of God. This in my time is the danger. There is great tension in the world, tension toward a breaking point, and men are unhappy and confused.”³⁴⁾

라고指摘하여 現代의 mass civilization 과 集團化를 猛烈히 非難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時代에 사는 人間은 各自 다음과 같은 疑問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 ①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 ②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싸울 것인가?
- ③ 나는 무엇에 대하여 싸울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런 疑問을 가지는 것은 現代人으로서는 當然하며 또 自然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萬物 중에서 人間만이 創造하는 道具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個人의 精神이요 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사람 以上에 의하여 創造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哲學, 數學, 詩, 美術, 音樂을 막론하고 合作에 의하여 創造된 것이 이루어진 例는 극히 드물었고, 언제나 創造라는 奇蹟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集團이 그것을 擴大, 利用, 普及하였을 뿐이지 集團이란 純粹한 意味에서 결코 무엇을 創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장 貴重한 것은 個人의 의로운 마음 속에 깃들기 마련이라고, Steinbeck 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At such a time it seems natural and good to me to ask myself these questions. What do I believe in? What must I fight for and what must I fight against?”

Our species is the only creative species and it has only creative instrument, the individual mind and spirit of man. Nothing was ever created by two men. There are no good collaborations, whether in music, in art, in poetry, in mathematics, in philosophy. Once the miracle of creation has taken place, the group can build and extend it, but the group never invents anything. The preciousness lies in the lonely mind of a man.”³⁵⁾

그런데 이 貴重한 個人의 마음에 宣戰布告를 하고 正面으로 挑戰해 들어오는 것은 集團이란 概念이요, 또 이 概念은 暴力이란 武裝까지 갖추고 덤벼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 集團은

34) Ibid., II, 131—132.

35) Ibid., II, 132.

毀損과, 操作된 飢餓와, 抑壓과 方向的 強要와 끔찍도 할 수 없는 環境造成 등의 方法으로自由로운 우리의 마음을 公公 묶어놓고, 그것을 鈍化시키고, 痲痺시키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슬픈 自滅의 길이라고 그는 역시 恨嘆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事實을 안 以上,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에 대하여 싸울 것인가의 解答은 自明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서 Steinbeck 은 다음과 같은 決意를 表明한다.

And this I believe: that the exploring mind of the individual huma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And this I would fight for: the freedom of the mind to take any direction it wishes, undirected. And this I must fight against: any idea, religion, or government which limits or destroy the individual. This is what I am and what I am about.”³⁶⁾

즉 첫째로 믿을 것은 個人的 自由롭고 또한 善에의 榮光을 찾아 헤메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貴重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우리가 위하여 싸울 것은 어느 方面으로 갈 것인가를 指示받는데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기의 길을 決定하는 自由, 이 自由를 위하여 서슴치 않고 싸워야 하며, 세째로 個人을 制限하거나 破滅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理念이건, 宗教이건 또는 어떤 傳統體制이건 간에 이것들에 대하여 끝까지 싸울 用意를 充分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集團들이 個人的 自由精神을 抹殺하려 드는가 라는 疑問에 대해서는, 이 個人的 自由精神이 存在하는 限 그런 集團들은 結局 破滅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Steinbeck은 斷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集團을 無條件 反對해야 하며, 또 非創造의인 動物들과 우리를 區分해 주는 한 가지, 즉 人間의 精神을 保護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善에의 榮光을 喪失하면 人間自體가 喪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Steinbeck 이 위와 같은 宗教觀 내지는 人間觀 위에 서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The Grapes of Wrath 에 表白한 그의 社會的 關心이나 鬪爭의 외침은 政治니, 經濟니 하는 皮相的, 혹은 低次元의인 것이 아니라 精神的인 墮落 내지는 腐敗에 대한 鬪爭 즉 宗教的 次元에서의 싸움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難民들의 苦難의 實狀을 暴露하고 또한 鬪爭을 通하여 資本家, 大地主들이 惡에서 눈을 뜨게 하고 즉 善과 惡의 거미줄에서 選擇을 하게 하여 善을 擇하게 하고 또한 個人的 生命의 價値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자는 데 主眼이 있지, 左翼系 人士들의 主張처럼 資本家들을 打倒하고 그 대신 그 자리에 勞動者 集團 즉 그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集團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Okies 라고 불

36) Ibid., II, 132.

리우고, 國家에서의 救濟는 커녕 自己 州에서 조차 쫓겨나 일거리도 없이 彷徨하는 이 처참한 難民들에게도 侵犯할 수 없는 存在價値를 認定하자는 것으로써, 人間은 결코 어떤 것이든 外部의 壓力에 의하여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을 목청 높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說明을 덧붙이던 Steinbeck 에 있어서의 社會惡이란 生命과 自由意志, 나아가 自由로운 選擇權에 대한 抑壓이고 또 이것들을 危機에 몰아 넣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는 流浪民들만이 道德的인 存在요, 善意의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또 그렇게 主張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는 이들을 이런 悲慘한 지경에 몰아 넣은 資本家들만이 惡德의 主人公이요 惡意의 人間들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누가 어느 때 어떠한 處地에 놓여 있던지 간에 모든 사람은 善과 惡의 兩者 중에서 하나를 自由롭게 選擇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이 選擇權은 悲慘한 流浪民이나 資本家에게도 똑 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Steinbeck 은 어떤 派黨 즉 集團을 이루어 누구를 憎惡咀呪하고 打倒하고 遂出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集團 즉 黨을 神格化시켰다고 全體主義를 批難하므로써(注, 37) 左翼系 人士들의 我田引水格 判斷과는 달리 共產主義가 이 世上에서 가장 惡質의인 全體主義 集團이라고 論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人生哲學과 思想을 바탕으로 한 그는 The Grapes of Wrath 의 末尾를 그렇게 終結지을 수 밖에 없었으며 또 거기에서 Steinbeck 의 社會意識의 限界성과 次元 낮은 社會參與에 대한 警告를 엿볼 수 있다.

主 要 參 考 書 籍

- 1) Peter Lisca. The wide world of John Steinbeck, New Brunswick: Rutgers Univ. Press, 1958.
- 2)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New York; Twayne, 1961.
- 3) E. W. Tedlock, Jr., & C. V. Wicker, eds.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57.
- 4) F. W. Watt. Steinbeck. Oliver and Boyd. London. 1962.
- 5) Joseph Fontenrose. John Steinbeck. Barnes & Noble Inc. New York, 1963.
- 6) Harry T. Moor.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Folcroft Press, Inc. 1968.
- 7) Lester G. Marks. Thematic Design in the Novels of John Steinbeck. Humanities Press, Inc. New York, 1968.
- 8) John Steinbeck. Journal of a Novel: The East of Eden Letters. The Viking Press Inc. 1970.
- 9) Alexander Cowie. The Rise of American Novel. American Book Co. New York, 1951.
- 10) A. Wanton Litz. Modern American Fiction. N. Y. Oxford Univ. Press, 1963.
- 11) Maxwell Geismar. Writers in Crisis. Hill & Wang. New York, 1961.
- 12) Heinrich Straumann. American Litera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Harper & Row, New York, 1968.

John Steinbeck's Religious View and Social Consciousness

Kim, Yi-chul

Summary

This paper purports to give an account of John Steinbeck's social consciousness and its limitation in his works, especially in the *Grapes of Wrath* compared with *East of Eden*.

In the *Grapes of Wrath*, he not only raises problems of migrating farmlaborers at the mercy of the landlords and bankers or capitalists without any possibility of getting ever better off, but also attempts to find a solution to them.

Not a spectator as in *In Dubious Battle*, he in this work is a positive advocate revealing facts, manifesting excessive cruelties of capitalism and poorness of social policies, and crying for the solution.

In the method of solving problems, we, however, find his limitation of social consciousness, especially at the last paragraph in the last chapter.

In his criticism on the *Grapes of Wrath*, Bernard De Voto contended that the ending of the novel is "symbolism gone sentimental," but he did not know Steinbeck's outlook or philosophy on life.

Steinbeck did express fully his view of life in *East of Eden*. He said, "It has in it everything I have been able to learn about my view of life or art . . . in all these years."

He also praised in *East of Eden* that "the free, exploring mind of the individual huma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Therefore his solution of problems raised in *The Grapes of Wrath* is not socialistic or revolutionary one, as some critics maintained. He hates the dualism of 'this good' and that bad. He does not think only the farmhands are good or the landowners are bad. He also said that "all humans are guilty." Here we can see that he grasps the meaning of life at the religious level not at that of ideology.

Thus the solution of problems in *The Grapes of Wrath* should naturally be like the last paragraph of it. But it was called 'gone sentimental.' And we should also understand that

the novel's materials to make a climactic ending difficult.

Steinbeck has faced the same problem in *In Dubious Battle*, where he had solved it by "stopping on a high point." By this same solution in *The Grapes of Wrath*, Steinbeck avoided three pitfalls: a deus ex machina ending; a Summing-up, moral essay; and a new level of horror.

These were the limitations of his social consciousness.